

언어정보와 어용론적전제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해

박 예 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인간생활의 힘있는 수단이다. 인간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호상관계는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291페이지)

사회생활에서 정보전달의 기본수단으로 되는것은 언어이다.

인간의 섬세한 사상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기능은 언어구조와 체계에 있다.

그러나 언어구조와 체계외에도 사람들의 언어교제의 성과적인 실현에는 그들의 사회적인식과 지식의 총화의 반영으로서의 문맥적배경들이 작용한다.

문맥은 해당 언어단위의 실제적인 의미를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조건으로 되며 언어교제의 통신적의미를 정확히 실현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로부터 문맥은 사람들의 언어교제에서 통신적기능을 실현시켜주는 조건으로 되며 문맥적의미는 언어교제과정에 표현, 전달, 인식되는 정보적의미라고 말할수 있다.

어용적전제는 문맥속에서 자주 찾아볼수 있다. 어용적전제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어용적범주의 하나이다.

언어정보교환이 이루어지자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서술내용의 사실여부가 미리 인정되거나 진리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어용적전제는 어용적추리리론으로서 실지 언어구조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개념, 의미, 언어환경 등에 의하여 이야기내용의 선결조건을 추리하고 판단하는것이다.

레: A: When was Thomas elected to Congress?

(토마스는 언제 국회의원으로 선거되었는가?)

B: Last year. (작년에 선거되었다.)

우의 대화에서 어용적전제의미는 《Thomas is a congressman.》(토마스는 국회의원이다.)로 된다. 이와 같은 어용적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두 대화자들사이에 언어정보교환이 진행되므로 직접적인 의미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이지만 대화는 계속 진행되게 된다.

레: ① Even Yong Su is taller than him. (심지어 영수마저 그보다 크다.)

② Yong Su is taller than even him. (영수는 심지어 그보다도 더 크다.)

우의 실례①에서의 어용적전제는 《Yong Su isn't tall.》(영수는 키가 크지 않다.), 《He is short.》(그는 키가 작다.)이다. 이렇게 전제가 설정되는것은 《영수》가 크지 않은데 《영수》가 《그》보다도 더 크므로 《영수》나 《그》는 모두 키가 작은것이다.

실례②의 어용적전제는 《Yong Su is very tall.》(영수는 키가 매우 크다.), 또는 《He is tall.》(그는 키가 크다.)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듣는 사람은 《그》가 키가 큰데 《영수》가 《그》보다 더 크므로 《그》나 《영수》는 모두 키가 크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른 실례로 한 방문자가 아침 8시에 지배인을 찾아왔을 때 서기가 방문자에게 알려주는 다음의 대화를 들수 있다.

레: 방문자: Can I see the manager, please? (지배인을 좀 만날수 있을까요?)

서기: I'm afraid you can see him from 9 a.m. (9시부터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우의 대화에서 《I'm afraid you can see him from 9 a.m.》(9시부터 만나게 되어있습니다.)의 어용적전제는 《You can't see the manager now.》(지금 지배인을 만날수 없습니다.)이다. 이러한 어용적전제에 기초하여 직접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지만 방문자는 지금 지배인을 만날수 없다는것을 인식하게 된다.

어용적전제는 사람들사이에 주고받는 언어정보와 밀접한 련관이 있다.

우선 언어정보교환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주는 력점에 따라 어용적전제는 다르게 표현된다.

레: 《그는 또 우유 2통을 샀다.》

우의 실례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력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전제가 다르게 된다.

력점을 《샀다》에 두면 전제는 《그는 이미 우유 2통을 샀다.》이고 력점을 《2통》에 두면 전제는 《그는 이미 몇통의 우유를 샀다.》이며 력점을 《또》에 주면 전제는 《그는 이미 다른 물건도 샀다.》로 된다.

이처럼 언어정보교환에서 어용적전제는 언어정보의미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말하는 사람은 각이한 전제에 따라서 말에서의 력점을 조절하게 되며 말을 듣는 사람은 그에 따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

또한 어용적전제는 회화문맥에서 초점의 강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레: A: It was *Yong Su* who *Chol Ho* met. (철호가 만난 사람은 영수였다.)

B: It was *Chol Ho* who met *Yong Su*. (영수를 만난 사람은 철호였다.)

우의 실례들은 영수와 철호가 만났다는 본질상 같은 정황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두 실례들에서 차이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초점에 의한 강조가 서로 다른것이다.

다시말하여 대화쌍방이 영수에 대하여 설명하는가, 아니면 철호에 대하여 설명하는가 하는것이다. 초점에 의한 강조에 따라 두 문장은 다음의 서로 다른 어용적전제를 가진다.

A: *Chol Ho* met someone. (철호가 누군가를 만났다.)

B: Someone met *Yong Su*. (누군가 영수를 만났다.)

이러한 어용적전제에 기초하여 언어정보를 받는 사람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있으며 무엇을 기본 말하려는가를 알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게 된다.

또한 어용적전제는 언어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말하는 목적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

실례로 《This dog is very fierce.》(이 개는 매우 사납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통하여 나타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개가 사나우므로 《Keep away from this dog.》(이 개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오.)이다.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Keep away from this dog.》(이 개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려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의미 즉 《This dog is very fierce.》(이 개는 매우 사납다.)는 어용적전제로 된다. 그것은 말을 듣는 사람이 개에게 접근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말하는 사람의 경고가 흔히 개가 사납기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기때문이다.



의미: 《This dog is very fierce.》 (이 개는 매우 사납다.)

목적: 《Keep away from this dog.》 (이 개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오.)



목적: 《Keep away from this dog.》(이 개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오.)

어용적전제: 《This dog is very fierce.》(이 개는 매우 사납다.)

또 다른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례: 《Close the window.》(창문을 닫으시오.)

우의 실례의 어용적전제는 《This room is too cold.》(이 방은 매우 춥다.)로 될수 있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This room is too cold.》(이 방은 매우 춥다.)라고 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의 목적이 《Close the window.》(창문을 닫으시오.)라는것임을 알수 있다.



의미: 《Close the window.》(창문을 닫으시오.)

어용적전제: 《This room is too cold.》(이 방은 매우 춥다.)



어용적전제: 《This room is too cold.》(이 방은 매우 춥다.)

목적: 《Close the window.》(창문을 닫으시오.)

또한 어용적전제는 언어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이 다같이 알고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어용적전제의 공지성(mutual knowledge)이라고 한다.

례: A: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초콜레트를 먹겠니?)

B: No, thanks. I'm on a diet. (아니요, 나는 지금 식사요법을 하고있답니다.)

A: Oh, okay! (아, 그래요.)

우의 대화에서 어용적전제는 《치료식사에서는 초콜레트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금지한다.》로 볼수 있다. 이러한 전제의 공지성에 따라 B는 전제를 알고 암시적으로 그것을 알고있는 A에게 점잖게 량해를 구할수 있는것이다. A가 B의 량해를 정확히 알고있는것으로 보아 A도 전제를 알고있으며 역시 B가 전제를 알고있다는것도 안다.

두 친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의 값에 대하여 말하는 다음의 대화를 보기로 하자.

A: U hm, what's the price now do you know eh? (음, 지금 값이 얼마인지 알고있소?)

B: Er I'll just work that out for you. (글쎄요, 내가 계산해보지요.)

A: Thanks. (고맙소.)

B: Thirty pounds a tube, so total is er ninety.

(한통에 30£이니까, 모두 합치면 저 90£이구만요.)

우의 대화에서는 어떤 물건을 몇개나 사는가 하는것이 어용적전제의 공지성이라고 볼수 있다. 대화쌍방이 아닌 제3자가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이 말하는 값이 어떤 상품의 값인지, 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다. 그것은 이 대화에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모르기때문이다.

그러나 A와 B는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것을 알고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품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대화를 지장없이 이끌어 나갈수 있다.

우리는 영어어용론적전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보다 깊이있는 외국어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